

# 광산구 아파트 전세가율 81.3% 전국 최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

광주 77.8%,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아

전남지역 72.2%로 꾸준한 오름세 유지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최근 1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도 80%에 다다라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1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11월 기준, 광주 광산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1.3%로 전국 263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1억원이라면 전세가가 8130만원이라는 뜻이다. 80%를 넘어선 곳은 전국에서 광산구가 유일했다.

전국 평균인 68.5%와 비교해 13%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광산구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79.5%를 기록한 뒤, 올 1월 전국 최초로 80%를 넘어서서 80.2%까지 올랐다.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됐다.

광산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수완지구의 경우처럼 교통과 편의시설, 학교 등 주변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진 계획지구가 많은데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다수여서 전세 수요가 불리기 때문이다. 전세 물량 품귀현상으로, 전세가격도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산구 외에도 11월 기준, 동구 72.7%, 서구 78.9%, 남구 76.5%, 북구 75.1%로, 전국 평균은 4.2%~10.4%포인트나 넘어섰다. 광주지역 평균 아파트 전세가율도 77.8%로 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광주의 경우, 투기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매매가격에 거품이 없어 전세가격 비율이 높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가격을 포함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광주가 72.7%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70%대를 넘어섰다.

전남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비율도 72.2%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목포가 78.7%로 전국 평균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순천시와 광양시도 각각 76.2%, 71.8%를 기록했다.

한편, 11월 기준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15개월 연속 상승해 매매가격의 61.0%까지 치솟았다. 전셋값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일제히 상승했으며 광주는 0.24% 올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갤럭시 브랜드가치 3년 연속 정상

이마트 2위 국민은행 3위…식음료 강세

삼성갤럭시가 3년 연속 국내 브랜드가치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브랜드가치 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타이 1일 발표한 '2013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갤럭시는 브랜드가치 평가지수(BSTI)가 938점으로 2위인 이마트(923점)를 크게 앞서며 3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의 정상을 차지했다.

올해 '갤럭시리우드', '갤럭시 기아' 등을 선보인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돼 삼성갤럭시 브랜드의 강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KB국민은행이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하며 3위에 올랐다. 지난해 3위였던 네이버는 올해 각 종 악재가 불거지며 10위로 미끄러졌다.

대한항공(4위), 롯데백화점(6위), 롯데월드(7위), 인천공항(8위), 신한카드(9위) 등 각 부문 대표 브랜드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불황으로 식음료, 유통 등 전통 브랜드가 강세를 보였다. 참이슬(11위), 신라면(12위), 제주삼다수(15위)가 각각 6계단, 24계단, 9계단 뛰어올랐고, 오리온 초코파이(43위)는 처음으로 100대 브랜드에 진입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수입차가 지속적으로 브랜드 순위가 상승하는 반면 국산차는 하락세를 보였다.

브랜드스타은 1월부터 11월까지 22개 업종, 200여개 품목의 브랜드 900여개를 대상으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BSTI 지수를 평가해 순위를 냈다. /연합뉴스



## 띠뜻한 겨울 나세요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태순)는 지난달 30일 관내 21개 시군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영업본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지역 장애인과 노인가정 등 소외계층 2기구에 연탄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현대·기아차 美 구매만족도 상승폭 최대

### 최근 1년간 6·5계단 상승…각각 5위·11위 기록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시장에서 구매만족도를 가장 높이 끌어올린 브랜드로 평가됐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시장조사기관 JD파워가 최근 발표한 '2013 구매만족도 조사'(SSI) 일반 브랜드 부문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작년보다 6, 5계단이 향상된 5위, 11위를 차지하며 나란히 최고의 순위 상승폭을 기록했다.

구매만족도 조사는 매년 업체별 차량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대상으로 딜러 시설, 딜러 역량, 고객 응대 등 다양하게 걸쳐 전반적 만족도를 평가해

실시되며 미국시장에서 각 업체의 판매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11위를 차지했던 현대차는 올해 작년보다 27점이 증가한 총점 677점을 획득했고 기아차는 33점이 들어난 661점으로 조사 대상 업체 중에서 최대의 점수 향상폭을 기록했다.

미국시장의 구매만족도 순위는 작년 712점에서 올해 718점을 얻은 미니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뷔익(694점→706점), 쉐보레(686점→676점), GMC(686점→683점), 현대(677점→

650점), 폴크스바겐(677점→665점), 피아트(674점→679점), 혼다(672점→666점), 도요타(672점→654점), 닛산(662점→646점), 포드(661점→669점), 기아(661점→628점) 순이었다.

현대차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작년보다 36점 늘어난 808점을 얻어 9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고 비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작년보다 18점이 증가한 546점으로 순위를 16위에서 8위로 크게 끌어올렸다.

올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딜러는 1594곳으로 2008년 1427곳보다 12% 증가했고 현대·기아차만을 취급하는 단독 딜러도 30% 늘어났다. /연합뉴스

## 한국광기술원 LED·OLED 조명제품 아이디어 공모

한국광기술원 신조명연구본부가 LED·OLED(발광 다이오드) 조명산업의 발전과 보급 확산을 위해 'LED·OLED 조명제품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열리는 공모전에서는 ▲실내외 조명 및 산업, 특수조명 등 LED·OLED를 광원으로 하는 모든 조명제품에 대한 아

이디어 ▲타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타 조명산업에 발전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당선작은 한국광기술원이 제품화 실현을 위한 추가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을 지원하고, 국내 LED·OLED 조명의 보급확산과 제품 차별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공모전출품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실령 출품을 원칙으로 개인이나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응모원서는 홈페이지([www.ledidea.co.kr](http://www.ledidea.co.kr))에서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신조명연구본부

제작부

</div